***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3. 7. 5.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사진1 : LS전선의 ‘초슬림 10기가급(CAT.6A) 랜 케이블’ 사진**  **사진2 : LS전선 직원이 데이터센터에서 랜케이블을 점검하고 있다** |
| **문의** | **김광국 과장 (02-2189-9597, 010-4306-5788 ,** [**kimgg@lscns.com**](mailto:kimgg@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전선, 미국향 초슬림 통신 케이블 출시**  **■ 세계에서 가장 가는 6mm 랜 케이블, 기존 대비 약 20% 축소**  **■ IDC/금융/반도체공장 집중 공략, 미국 시장 확대**  **■ 광섬유 원천기술 확보, KT서브마린 인수 등 통신 사업 확대**  LS전선이 초슬림 10기가급(CAT.6A) 랜 케이블을 상용화했다고 5일 밝혔다.  외경이 세계에서 가장 가는 6mm다. 기존 범용 제품의 7.2mm 대비 약 20%를 줄였다.  건물 벽이나 천장 속에 수백 가닥씩 설치되는 랜 케이블 수를 20% 이상 늘릴 수 있다. 데이터 전송량도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LS전선은 데이터센터(IDC)와 은행, 증권사, 반도체공장, 스마트빌딩 등 대용량 데이터 사용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본격 마케팅에 나선다.  또, 전 세계 랜 케이블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와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에 대한 투자, 플랜트 건설 증가 등에 따라 시장이 성장세에 있다.  이동욱 LS전선 통신사업부장은 “데이터 전송량을 늘리기 위한 선두업체간 ‘케이블 축소 경쟁’이 치열하다”며, “고부가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기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온 미국 시장 확대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LS전선은 최근 광케이블 원천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해저 광케이블 전문 시공업체인 KT서브마린 지분을 인수하는 등 통신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 |